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김현미* · 황미혜** · 전성주*** · 장군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중의 건강 요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건강서비스의 전문화화와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짐에 따라 간호직의 수준 높은 전문성 확립 또한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전문화된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전인간호 실현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은 학교교육과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의 가치를 내재화 하고, 전문인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실습에서 배웠던 것과 실제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간호사들의 역할에 혼돈이 오고, 이상적인 간호개념과 현실과의 갈등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불만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은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간호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송인자, 1993)는 일 연구에서 보듯이, 간호사 스

스로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전문직 간호사가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지각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김명희, 1995).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하며(Geiger & Davit, 1988), 특히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한다(Arthur, 1990).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직에 필적 할만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궁정적일 때 생겨나며, 부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역할수행에 필수적인 요인인 독립성을 방해한다(Leddy & Pepper, 1985). 따라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존감 및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오며,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경우에는 간호 생산성이 저하된다(Arthur, 1990). 따라서 간호전문직이 건강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궁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중

* 경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 카톨릭 상지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 마산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간호전문직과 관련하여 주로 가치관, 역할, 직무만족도, 전문적 태도 등에 관한 것을 연구해왔으며(김명희, 1985; 방용자, 김혜자, 1985; 이성립, 1986; 강현숙, 1988; 이해원 등, 1988; 김현미, 1990; 문혜영, 1990; 양길문, 1990; 이상미, 1991; 김숙자, 1992; 이경혜 등, 1995; 이상미, 1995; 한경순 등, 1997) 전문적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몇몇 연구자들(송경애, 노춘희, 1996; 김수지 등, 1996; 노춘희, 송경애, 1997)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대구, 부산, 경북, 경남지역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고한 전문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전문직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2) 임상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영역별로 파악한다.
- 3) 임상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에 영향하는 특성을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1) 임상간호사

간호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를 말한다.

2) 전문적 자아개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Geiger & Davit, 1988)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Arthur(1990)가 개발한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도구인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PSCNI)를 송경애 등(199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II. 문헌고찰

전문직(profession)이란 용어는 다른 일반적인 직

업과 구분되는 일련의 직업범주를 뜻한다. 전문직의 어원은 Latin어의 “Professus”란 말로 그 뜻은 공포(公布)하다, 신앙을 고백하다, 주창(主唱)하다, 대학에서 가르치다 등으로 해석된다. 유럽에서는 극히 학문적인 분야에만 University의 문을 열어 놓고 신학, 철학, 법학, 의학 등 소위 대학교육을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직업만을 전문직이라고 불렀으나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대학의 문을 넓게 열어 놓았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에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과 연구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전통적인 전문직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직업이나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문직이라고 칭할 수는 없으며, 오늘날에는 대체로 직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criteria)에 의해 그 직업이 전문직에 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이귀향 등, 1984; 이해원 등, 1988).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을 일반적인 직업과 구별해서 보통 전문직업이라 부르는데, 이는 전문적인 기초와 소양(素養)을 가진 직업을 뜻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 기초 전공과정을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과정에 두고 있으며, 전문직업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제도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이귀향, 1984).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전문가(expert), 자율성(autonomy), 권한(authority), 책임감(responsibility) 등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일컫는다(김수지, 1991). 즉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다(홍여신등, 1992). 또한 전문직은 개인의 책임이 수반되는 조직 조작과 행위를 포함하면서 학구적인 성격을 띠므로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당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해야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며, 단순히 학문적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는 확실히 실제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도의 교육과 실험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기들의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의 활동과 의무, 책임을 보증하며 단체의식을 조정하여야 한다(전산초, 1987; 대한 간호협회, 1986).

자아는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self 또는 ego라고 하며 자아상(self image),

자아구조(self structure), 자아개념(self concept), 자아정체성(self identity), 현상학적 자아(phenomenal ego) 등으로 불려진다. 자아개념은 1890년 James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자아란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인지되는 자아(self as Known)인 경험적인 자아와 인지하는 자아(self of Known)인 주관적 순수 자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최정훈(1972)은 자아개념이란 “나라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지각을 말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지각이며 이것은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지각이다”라고 하였으며, 전병재(1974)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하였다.

자아개념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스스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능동적이고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며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성취 가능성성이 높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응이 어렵고 열등감, 불확실감을 가지며 정서적 손상이 크고 자신감이 없어 목표설정이 낮거나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체계는 전문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점, 즉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생산적인 전문적 자아개념이 생기게 되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면 전문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이 저하된다(Leddy & Pepper, 1985).

전문적 자아개념이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서(Geiger & Davit, 1988), 전문직업적 지식과 가치(value), 기술(skill)에 관한 자기평가(self-evaluation)를 통해 구성된다(Kelley, 1992). 특히 전문적 간호사로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이라 하는데, 이는 전문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Arthur, 1990). Arthur(1992)은 간호의 미래가 전문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려는 간호사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간호전문적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Leddy & Pepper(1985)는 간호전문적 자아개념의 발달은 간호전문직의 교육과 실무, 연구와 관련된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자아전환의 과정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Strasen(1989)은 간호계 지도자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전문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간호전문직 지도자다운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것과 간호사들이 확고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 지원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확고하고도 혁신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송과 노(1996)가 중부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대상자들이 중상위 수준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수자 등(1996)은 전국 병원에 근무하는 12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을 측정한 결과 아직 간호사들의 전문직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부산, 경북, 경남지역에 소재한 10개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7문항과 전문적 자아개념에 관한 27문항을 포함하여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Arthur(1990)가 개발한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PSCNI)를 송경애 등(1996)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서 전문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식 4점 척도로 “그렇다”에 4점, “그런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최저 27점에서 최고 108점까지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송 등(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PSCNI의 각 구성영역별 신뢰도를 보면, 송

등(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전문적 실무 .85, 만족감 .77, 의사소통 .4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실무 .83, 만족감 .70, 의사소통 .28 이었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11월 22일에서 1997년 3월 7일까지이며, 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자들이 직접 각 병동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문항별 응답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와 영역별 문항점수는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NOVA 후 집단간 차이는 Duncan multip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같이 연령별로는 26~30세 이하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5세 이하 36.0%, 31~35세 이하 18.0%였으며, 36세 이상은 9.2%였다. 종교가 있는 군이 59.3%이었고,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84.4%, 대학졸업이 22.8%였다. 결혼상태는 68.5%가 미

혼이었으며,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50.6%, 특수부서가 49.4%를 차지하였고,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39.8%, 9년 이상이 24.0%, 3~6년 미만이 20.7%, 6~9년 미만이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85.1%가 일반간호사였다.

2.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문항별 응답 분포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문항별 응답분포는 <표 2>와 같다. 대상자들의 문항별 전문적 자아개념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67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대상자들이 가장 높게 반응한 문항은 16번 문항인 “나는 간호사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3.39점이었고, 가장 낮게 반응한 문항은 23번 문항인 “간호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로 평균 2.02점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N	%
연령	25세 이하	322	36.0
	26~30세 이하	329	36.8
	31~35세 이하	161	18.0
	36세 이상	82	9.2
종교	유	530	59.3
	무	364	40.7
최종학력	전문대학	655	73.3
	대학	204	22.8
	대학원	35	3.9
결혼상태	미혼	612	68.5
	기혼	282	31.5
근무부서	일반병동	452	50.6
	특수병동	442	49.4
근무경력	3년 미만	356	39.8
	3~6년 미만	185	20.7
	6~9년 미만	138	15.4
	9년 이상	215	24.0
	직위	761	85.1
	책임간호사 및 수간호사	133	14.9
계			894 100.0

3.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와 영역별 문항 점수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와 영역별 문항 점

〈표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문항별 응답 분포

N = 894

문항번호와 내용	평균점수(표준편차)
1. 근무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3.06 (.54)
2. 나는 간호사로서 나의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2.90 (.68)
3. 나는 리더로서 유능하다.	2.58 (.68)
4. 나는 내가 융통성이 있다고 믿는다.	2.93 (.63)
5. 나는 대체적으로 유능하다.	2.72 (.65)
6. 내가 책임을 맡으면 내 부서의 사람들은 능률적으로 일한다.	2.69 (.71)
7. 일반적으로 나는 출근시간이 기다려진다.	2.20 (.75)
8. 간호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수가 많다.	2.49 (.67)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2.86 (.80)
10. 간호직은 보람있는 직업이다.	3.08 (.66)
11. 나는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2.93 (.59)
12. 나는 나와 환자 사이에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기 원한다.	2.34 (.76)
13. 나는 리더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2.91 (.81)
14. 간호사의 업무는 내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2.05 (.89)
15. 나는 간호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재빨리 선택한다.	2.90 (.62)
16. 나는 간호사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39 (.66)
17. 내 동료들은 대부분 나를 리더로 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 하는 것 같다.	2.62 (.68)
18. 나는 간호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2.67 (.84)
19. 나는 간호업무를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57 (.63)
20. 유능함이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유능한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2.45 (.66)
21. 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지 않는 것이 편안하다.	2.74 (.82)
22.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은 나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2.53 (.76)
23. 간호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2.02 (.75)
24. 나는 동료들 만큼 능숙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91 (.71)
25. 나는 어쩔 수 없이 간호직에 머물러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든다.	2.39 (.87)
26. 내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대부분의 경우 환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2.93 (.67)
27. 나는 간호업무를 평생적으로 계속할 것이다.	2.31 (.90)
	2.67 (.30)

수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최하 27점에서 최고 108점까지 분포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 최소가 38점, 최고가 104점으로 평균 72.11 점, 표준편차 8.21점, 평균평점 2.67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각 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평균평점은 전문직 실무영역이 지도력, 융통성, 기술 영역으로 세분화 시켜 2.68점, 2.79점, 2.77점으로 전체 2.76점이었고, 만족감 영역이 2.39 점, 의사소통 영역이 2.83점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만족감 영역이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연령별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를 보면, 26세 이하인 군이 70.61점인 반면 36세 이상인 군은 74.60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하인 군과 26세 이상인 군, 26~30세 이하인 군과 36세 이상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7.96$, $P = .000$). 종교별로는 종교가 있는 군(평균 72.68점)이 없는 군(평균 71.29점)에 비해 전

〈표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 영역별 문항점수

영역(문항수)	문 항 점 수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전문직 실무(16)	21.00	64.00	44.09	5.76	2.76
지도력(4)	5.00	16.00	10.70	1.84	2.68
융통성(7)	9.00	28.00	19.53	2.67	2.79
기술(5)	6.00	20.00	13.86	2.15	2.77
만족감(7)	7.00	27.00	16.71	3.38	2.39
의사소통(4)	4.00	16.00	11.31	1.72	2.83
전문직자아개념(27)	38.00	104.00	72.11	8.21	2.67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일반적 특성	총계 N(%)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M	S.D	t or F	P
연령	25세 이하	322(36.0)	70.61	7.57	7.96 .000***
	26~30세 이하	329(36.8)	72.27	8.10	(사후검정 = 1과 2,
	31~35세 이하	161(18.0)	73.55	9.13	1과 3, 1과 4, 2와 4)
	36세 이상	82(9.2)	74.60	8.13	
종교	유	530(59.3)	72.68	8.32	2.51 .012*
	무	364(40.7)	71.29	7.99	
최종학력	전문대학	655(73.3)	71.92	8.16	6.77 .001**
	대학	204(22.8)	71.89	8.07	(사후검정 = 1과 3,
	대학원	35(3.9)	77.09	8.58	2와 3)
결혼상태	미혼	612(68.5)	71.23	7.85	
	기혼	282(31.5)	74.04	8.65	-4.65 .000***
근무부서	일반병동	452(50.6)	72.52	8.37	
	특수부서	442(49.4)	71.70	8.03	1.49 .137
근무경력	3년 미만	356(39.8)	70.56	7.20	
	3~6년 미만	185(20.7)	71.88	7.51	10.07 .000***
	6~9년 미만	138(15.4)	73.13	8.94	(사후검정 = 1과 3,
	9년 이상	215(24.0)	74.23	9.30	1과 4, 2와 4)
직위	일반간호사	761(85.1)	71.73	8.04	
	책임간호사 및 수간호사	133(14.9)	74.30	8.85	3.13 .002**
		894(100.0)			

*P<.05

** P<.01

*** P<.001

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51$, $P=.012$),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을 졸업한 군(평균 77.09점)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군(평균 71.92점)과 대학을 졸업한 군(평균 71.8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6.77$, $P=.001$).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집단이 대학졸업 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인 군(평균 74.04점)이 미

혼인 군(평균 71.23점)에 비해 유의하게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5$, $P=.000$). 근무경력별로는 3년 미만인 군이 평균 70.56점으로 가장 낮고, 9년 이상인 군이 평균 74.23점으로 가장 높아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근무경력 3년미만인 군과 6년이상인 군, 3~6년 미만인 군과 9년 이상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0.07$, $P=.000$). 직위별로는 책임간호사 및 수간호사군(평균 74.30점)이 일반간호사군(평균 71.73점)에 비해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3.14$, $P=.002$). 그러나 근무부서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 논 의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직에 필적할만한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긍정적이고 확고한 전문적 자아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문항별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67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전문적 자아개념 총점은 평균 72.11점이었다. 송과 노(1996)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부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대상자들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2.79점으로 중상위 수준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나타냈고 전문적 자아개념 총점은 평균 75.21점이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의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부지역에 비해 영남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호주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Arthur(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문항별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점수는 평균 3.41점, 전문적 자아개념 총점은 92.07점이었고, 캐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Arthur와 Thorne(1995)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자아개념 총점이 92.1점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 보다 상당히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아직 이들 국가의 경우에 비해 국내 간호사들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김수지 등(1996)은 동일한 도구에 3문항을 추가하여 전국 병원에 근무하는 12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들이 5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평균점수를 보여 아직 간호사들의 전문직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을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문항별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7문항 중 대상자들이 가장 높게 반응한 문항은 16번 문항인 “나는 간호사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3.39점이었고, 가장 낮게 반응한 문항은 23번 문항인 “간호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로 평균 2.02점이었는다. 송과 노(1996)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높게 반응한 문항은 역시 16번 문항(평균 3.64점)이었고, 가장 낮게 반응한 문항은 14번 문항인 “간호사의 업무는 내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평균 1.88점)로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문항의 경우 본 연구에서도 평균 2.05점으로 23번 문항 다음으로 낮은 반응을 나타냈다.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실무 영역이 지도력, 융통성, 기술 영역으로 세분화 시켜 평균 2.68점, 2.79점, 2.77점으로 전체 2.76점이었고, 만족감 영역이 2.39점, 의사소통 영역이 2.83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만족감 영역이었다. 송과 노(1996)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실무 영역이 평균 2.83점으로 하위척도별 평균점수는 융통성 2.92점, 기술 2.87점, 지도력 2.59점의 순이었고, 만족감 영역은 평균 2.70점, 의사소통 영역은 평균 2.82점으로 대상자들의 영역별 전문적 자아개념 점수는 전문적 실무, 의사소통, 만족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rthur와 Thorne(1995)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실무 영역 3.6점, 의사소통 영역 3.2점, 만족감 영역 3.1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신뢰도에 있어서 본 연구와 Arthur(1990), Arthur와 Thorne(1995), 송과 노(1996)의 연구에서 모두 의사소통 영역의 신뢰도가 낮았는데, 이는 이 영역의 문항수가 다른 영역의 문항수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앞으로 이 영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문항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는 근무부서를 제외하고 연령, 종교, 학력, 결혼상태, 근무경력, 직위 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송과 노(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별, 근무경력별, 직위별 집단간 차이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36세 이상인 집단과 근무경력이

9년이상인 집단, 직위가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인 집단에서 각각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지고 근무경력이 증가됨에 따라 자신감이 높아지고 지위가 안정되기 때문(양길문, 1990)인 것으로 해석된다. Porter(1963)와 Friedlander(1971)는 지각된 욕구충족의 중요성과 직업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위가 높을수록 자아실현도와 자율욕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간호사들의 전문적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는데, 대개 취업 후 3년안에 전문적 간호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환자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므로 이 기간은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송과 노, 1996). 따라서 앞으로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전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6년 11월 22일 부터 1997년 3월 7일 까지 대구, 부산, 경북, 경남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89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은 평균 72.11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67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2.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의 구성영역별 평균 문항 점수는 전문적 실무영역 2.76점, 만족감 영역 2.39점, 의사소통 영역 2.83점으로 의사소통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는 근무부서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높았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을 졸업한 군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군이나 대학을 졸업한 군에 비해 높았고, 또 전문대학 졸업 집단이 대학졸업 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

로는 기혼인 군이 미혼인 군 보다 높았다.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근무경력 3년미만인 군과 6년이상인 군, 3~6년 미만인 군과 9년 이상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위별로는 책임간호사 및 수간호사 군이 일반간호사 군에 비해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간호사들이 중간 수준의 전문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적이 건강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전문적 자아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고려할 때, 임상실무 환경의 변화와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교육을 통해서도 전문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현숙(1988).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조사연구. *중앙의학*, 53, 779~786.
- 김명희(1985).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1990). 간호사와 환자의 간호역할 기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지(1991). 간호전문화와 간호규정. *대한간호*, 30 (5), 46~53.
- 김수지, 노춘희, 한영숙, 정금희(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적자아개념과 간호전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5(2), 5~17.
- 김조자, 박지원(1988).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업만족도와 그에 관련된 요인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1), 5~18.
- 노춘희, 송경애(1997). 임상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기본 간호학회지*, 4(1), 61~71.
- 대한간호협회(1986). 전문직관. 보수교육교재.
- 문혜영(1990). 종합병원 간호사의 동기부여와 직무만

- 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호(1981). 한국에서의 간호교육과 간호업무의 이중성. *대한간호*, 20(4), 68-73.
- 손진희, 최선혜, 도복ぬ(1996). 임상간호사의 직업불만족개선을 위한 일방안. *경북의대 지*, 37(1), 181-195.
- 송경애, 노춘희(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94-106.
- 송인자(1993). 간호 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 *대한간호*, 32(2), 51-62.
- 양길문(1990).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성격 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혜, 방희숙, 왕임순(1995). 임상간호사들의 가치관 및 가치성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5(2), 279-294.
- 이귀향, 이영복(1984). *간호사회학 : 간호윤리·직업적 조정*. 수문사, 12-13.
- 이상금, 박정호(1996). 간호사가 지각한 자율성, 그룹 결속력과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직무동기, 재직 의도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1), 5-15.
- 이상미(1991). 간호사의 역할개념 양상과 간호직에 대한 혼신몰입에 관한 연구. *간호 학회지*, 21(3).
- 이상미(1995). 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개인의 성격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25(4), 790-806.
- 이성립(1986). 임상간호원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임영신, 송인자, 전광순. 중간관리자의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7(1), 69-78.
- 전병재(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권, 107-129.
- 전산초(1987). 전문직관과 간호전문직의 의의와 전문성 개발. *간호전문직 :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358-371.
- 최정훈(1972).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 한경순, 염순교, 조주연, 정연강(1997).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 태도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7(2), 364-376.
- 홍여신, 한성숙, 엄영란(1992). *간호 윤리학*. 신광출판사, 70-84.
- Arthur, D.(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Arthur, D.(1992).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712-719.
- Friedlander, F.(1971). Comparative work value systems. *Personnel Psychology*, 50, 193-197.
- Geiger, J.W.K. & Davit, J.S.(1988).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19, 50-58.
- Kelly, B. (1992).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undergraduates and their perceptions of influential forces. *J. of Nursing Education*, 31(3), 121-125.
- Leddy, S. & Pepper, J.M.(1985). *Conceptual bases of professional nursing*. Philadelphia : Lippincott Co.
- Porter, L.W.(1963). Job Attitudes in management : II. Perceived importance of needs as a function of job lev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7, 141-148.

-Abstract-

Key Words :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self concept

A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Clinical Nurses

*Kim, Hyun Mi** · *Hwang, Mi Hye***

*Jeon, Sung Ju**** · *Jang, Gun Ja*****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clinical nurses. The subjects consisted of 894 nurses who are working at 10 general hospital in Daegu, Pusan, and Kyungsang-do.

The nurses were surveyed from November 22, 1996 to March 7, 199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SPSS/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average score of PSCNI was 72.11 points.

And average item score was 2.67 points, this score means mid level in professional self concept.

2. A comparison of the scores for the dimensions of the PSCNI were as follows : the mean item score of professional practice, 2.76 points ; satisfaction, 2.39 points ; communication, 2.83 points. Thus, the score for communication was highest.
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PSCNI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gard to age($P=.000$), religion ($P=.012$), educational level($P=.001$), marital status($P=.000$), period of nursing career($P=.000$) and position($P=.002$).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field of work.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a program for improv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clinical nurses.

* Department of Nursing, Kyungsan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Catholic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